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6. 15 (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2023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해설판)

4. 글로벌 투자전략_行(행) - ETF: 균형 잡기

칼럼의 재해석

시작된 미국 제조업 설비 건설, 뒤이을 전기장비 수요에 주목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본 자료의 원본은 2023년 5월 23일 발간된

[2023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4 – 글로벌 투자전략: 行(행)] 입



▲ Passive/ETF

Analyst 최병욱

02. 6454-4876

byungwook.choi@meritz.co.kr

2023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4-3 (해설판)

[글로벌 투자전략] 行(행)

ETF: 균형 잡기

- ✓ 하반기 테마형 ETF를 바라볼 Key Factor는 이익
- ✓ 상반기 좋았던 이익흐름이 지속될 테마형 ETF: EVX(폐기물), AWAY(여행)
- ✓ 상반기 부진한 이익흐름이 반전될 테마형 ETF: LIT(리튬)
- ✓ 스타일(안정성) ETF: COWZ(잉여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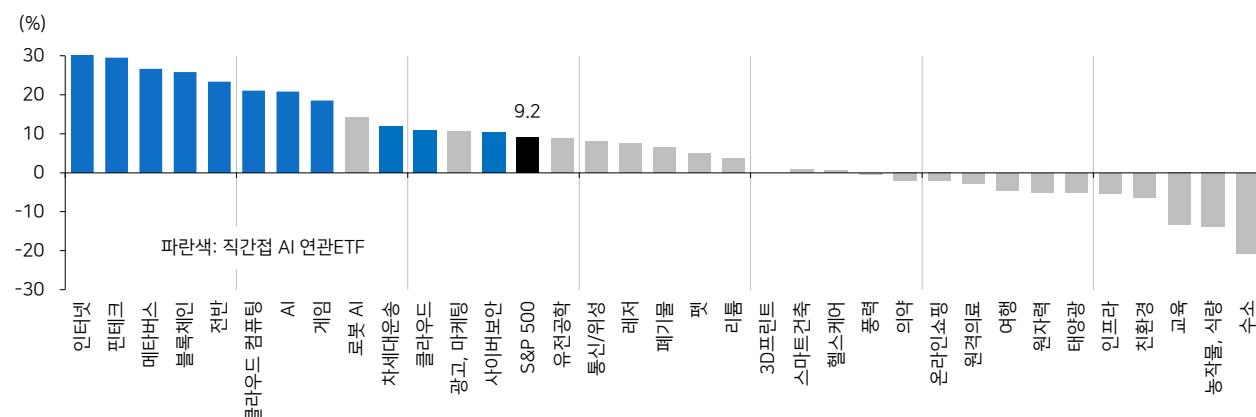
하반기, 잘 나갈 테마는 뭘까?

상반기 테마: AI 테마의 독주

상반기 ETF 시장은 AI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5월 말까지 AI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ETF 위주로 상승했다. 자금흐름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AI ETF AIQ는 연초 이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잠시 주가가 주춤했던 시기에도 자금 유입은 지속됐다. AIQ의 수익률은 연초 이후 20.8%다(5월 말 기준).

그럼 하반기에는 어떨까? 당시 글로벌전략팀에서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AI, 빅테크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런 AI를 제외하면 다른 테마 중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본 자료는 그에 대한 추천을 담은 자료다. 이익을 하반기 시장의 주요 키 팩터로 선정하고, 하반기에 이익이 괜찮은 ETF들을 선정해 제시한다.

그림1 테마형 ETF 수익률_연초 이후_2023년 5월 23일 기준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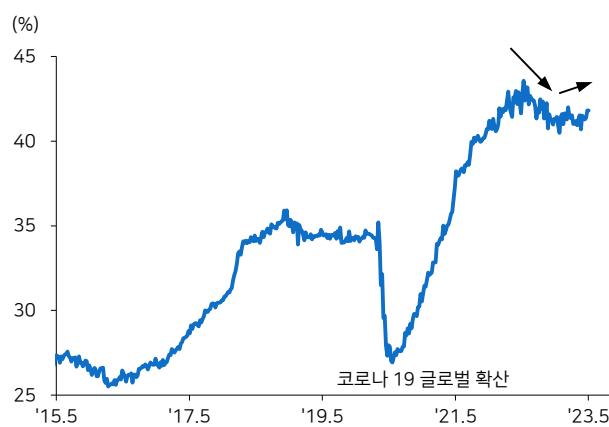
하반기, 테마를 바라볼 Key Factor: 이익

하반기를 결정할 Key Factor는 이익

하반기 우리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테마형 ETF를 봐야할까? 필자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이익을 봐야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이익이 돌아선 것이다. 글로벌, 특히 미국 기준으로 1년 가까이 하향조정되던 이익 전망치가 3월 말 저점 기록 이후 1개월간 2.7% 상승했다. 이와 같은 이익상황의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의 눈이 이익전망치에 주목하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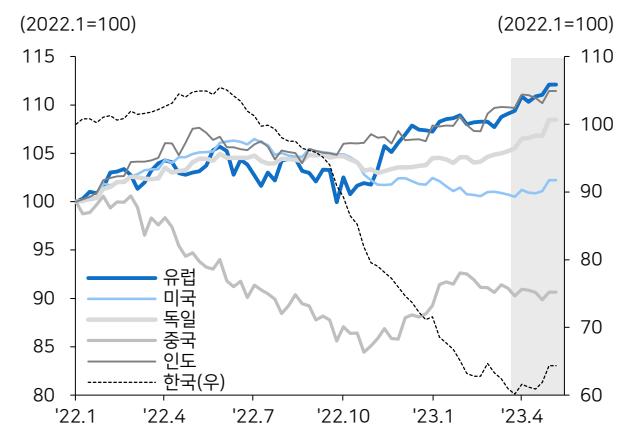
두 번째는 벨류에이션이다. 미국 시장의 벨류에이션이 이미 큰 폭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미국 시장 PER은 19.1배, 5월 말 기준 18.7배로 평균수준에 거의 다다랐다. 주가는 이익과 벨류에이션(기대치)의 함수다. 높은 금리 수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벨류에이션보다는 이익 측면에서 상승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림2 MSCI 글로벌 12개월 선행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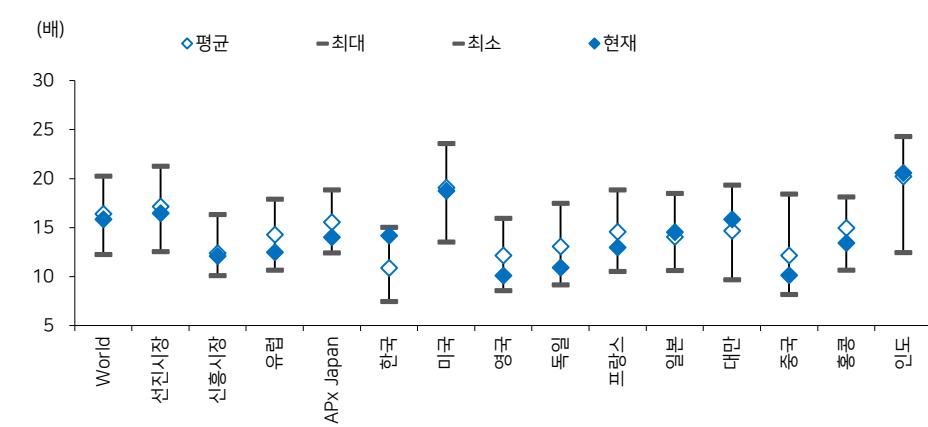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요국 12개월 선행 EPS 추이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가별 최근 5년 PER 밴드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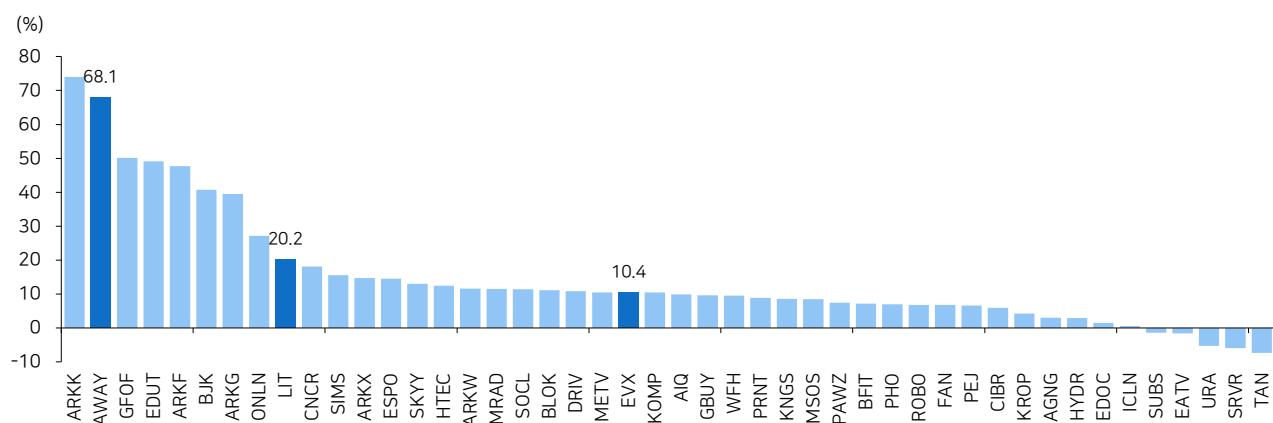
테마형 ETF 상반기 이익 정리

그런 관점에서 테마형 ETF의 이익을 살펴보자. 다수 테마형 ETF의 이익흐름이 양호하다. 특히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예상치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ETF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예상 대비 높은 수요가 영향을 미쳤지만 소규모 종목들 중 적자가 예상되던 종목들이 흑자를 기록한 영향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ARKK, AWAY 등 ETF는 예상치 대비 70%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목해야 할 ETF는 AWAY, LIT, EVX

실적발표의 영향도 포함하여, 상반기의 이익전망치 흐름을 비교해보면 다음 차트에 나타냈다.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FY2인 2024년보다는 2023년을 비교하는 게 시장 분석에 있어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일 것이라는 판단에 2023년 이익전망치를 비교했다. 최근 1개월, 3개월 모두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1사분면에는 여행, 광고, 마케팅, 폐기물 테마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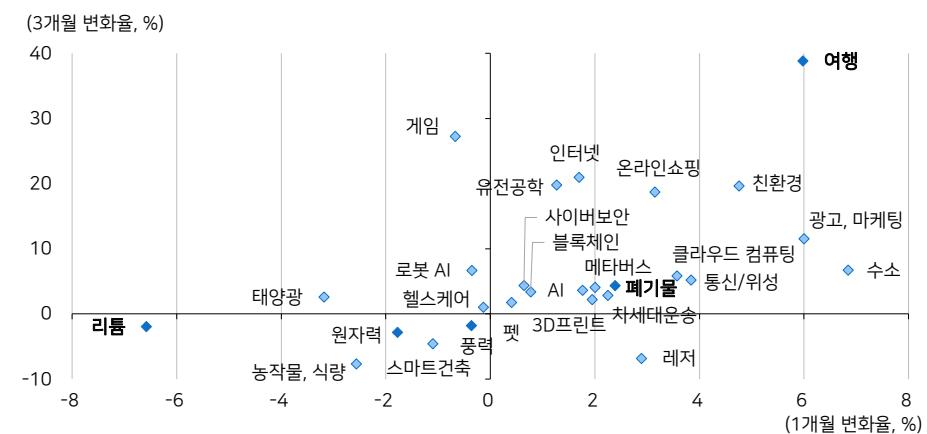
그림5 테마형 ETF '23년 1분기 실적발표 예상치 상회물



주: ETF 각 종목별 합산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023년 이익전망치 변화율_최근 1개월, 3개월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 ETF들 중 상반기에는 이익흐름이 좋았고,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ETF, 2) 상반기에는 이익흐름이 좋지 못했으나 하반기, 혹은 내년 이익 반전을 꾀할 수 있는 ETF 두 가지를 선정했다. 첫 번째 상향지속이 전망되는 ETF 중 눈에 띄는 것은 EVX(VanEck Environmental Service ETF/폐기물), AWAY(ETFMG Travel Tech ETF/여행)이다. 반대로 상향반전이 전망되는 ETF는 LIT(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리튬)이다.

표1 2023년 하반기 ETF 포트폴리오: 펀더멘탈, 스타일

대분류	소분류	티커	이름	투자포인트	AUM (백만달러)	일평균 거래대금 (백만달러)
펀더멘탈	상향지속 전망	EVX	VanEck Environmental Services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처리 및 정화시설 종목에 투자하는 순환경 테마 특이한 점은 EVX 내 수자원 및 정화시설 종목 이익전망치 및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노후화된 미국 상하수도 시설, 지원금 등 고려해봤을 때 긍정적 전망 	70	0.2
		AWAY	ETFMG Travel Tech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온라인 예약 처리 및 공유 플랫폼에 투자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요 회복하지 못해 추가적인 수요 회복의 럼 존재 	122	0.7
	상향반전 전망	LIT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이익 턴어라운드 실현 전망은 이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발전에 따라 배터리 생산가격 하락으로 2차 전지 대중화가 실현 2024년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긍정적인 추가 반응 기대 	3,170	23
스타일	잉여 현금흐름	COWZ	Pacer U.S. Cash Cow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한 금융 상황에서는 기업이익의 변동성이 확대,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현금흐름 활용 이렇듯 전반적 FCF 악화 상황 속, FCF 양호 종목 부각될 전망 	12,760	85

주: 5월 19일 기준

자료: ETF.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상향지속전망 #1: EVX(VanEck Environmental Service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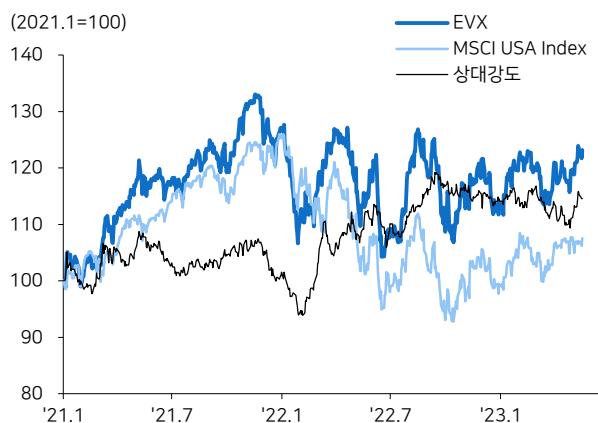
종목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 기록

EVX는 폐기물 처리 및 정화시설 종목에 투자하는 순환경 테마의 ETF다. 미국 국내 소비자 폐기물 처리, 산업 부산물의 제거 및 저장, 관련 자원 관리의 국제적 수요 증가 등 요인에 이익을 얻는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한다. 상반기에 예상 외의 수요에 실적이 좋으면서 22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10% 이상 서프라이즈를 기록, 2개 종목만이 실적 미스를 기록하면서 고른 실적을 보였다.

상하수도, 수자원 종목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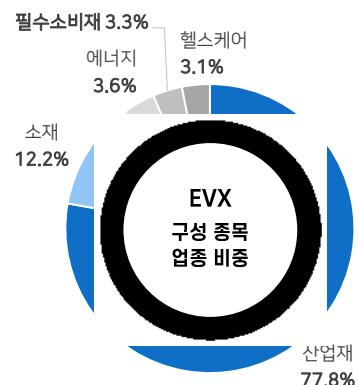
하반기에도 EVX의 이익은 상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중 수자원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상하수도는 낙후돼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이유 중 하나로 상하수도 위생을 지목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 종식 이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이에 IIJA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서도 클린워터 예산안이 550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실적 개선, 성장 기대 등 요인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7 EVX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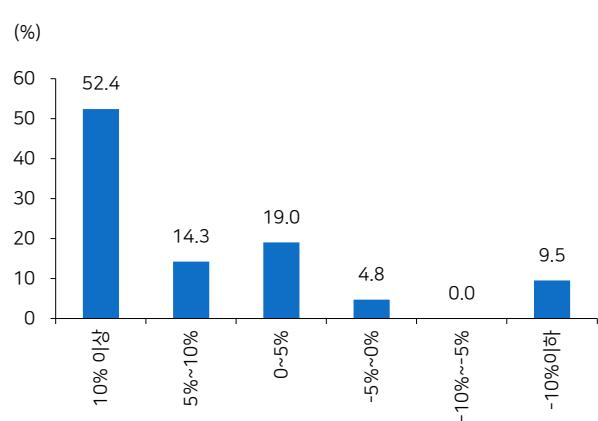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EVX 구성 종목 업종 비중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EVX 종목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수자원 종목 이익전망치 및 성장성

티커	이름	시가총액 (십억달러)	이익전망치 변화율 (1개월, %)		이익증가율 (%)	
			2023	2024	2023	2024
ECL	Ecolab	49.1	1.2	8.9	10.9	16.3
AWR	American States Water	3.3	8.9	0	49.2	-5.8
AQUA	Evoqua WaterTech	6	7.2	6.5	3.3	16.7
ARIS	Aris Water Solutions	0.5	4.5	3.9	1,548	70.5
AWK	American Water Works	28.2	1.8	-0.9	14.4	7.4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상향지속전망 #2: AWAY(ETFMG Travel Tech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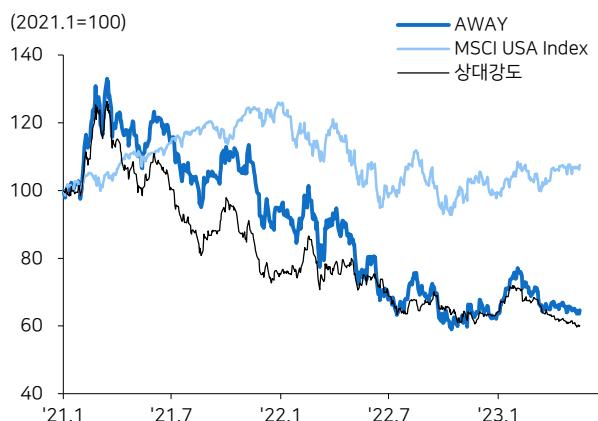
이익 Makeup 구간 진입 기대에
전망치 상향

AWAY는 여행 테마의 ETF로, 주로 온라인 예약 처리 및 공유 플랫폼 종목에 투자한다. 여행기술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숙박업에 특화된 BEDZ, 항공 및 크루즈에 특화된 CRUZ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EVX와 비슷하게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여행업종이 다시 이익을 Makeup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대에 AWAY 구성종목 이익전망치는 FY1뿐만 아니라 FY2까지 각각 최근 1개월 6.0%, 5.7% 상향조정됐다.

아시아 지역 추가 수요 회복, 금융
환경 완화 기대 요인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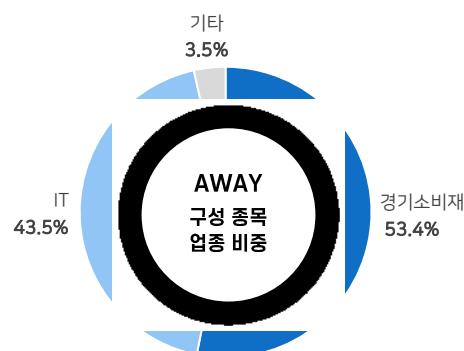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요까지는 추가적인 회복의 여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23% 회복에 불과, 80% 회복 여력이 남아 있다. 아시아 지역 강점이 있는 Booking Holdings와 중국 기반 온라인 여행사 Trip.com의 추가 트래픽 확보가 기대된다. '여행기술주' 특성 상 코로나 + 고금리 환경에 부진했으나, 환경의 변화가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0 AWAY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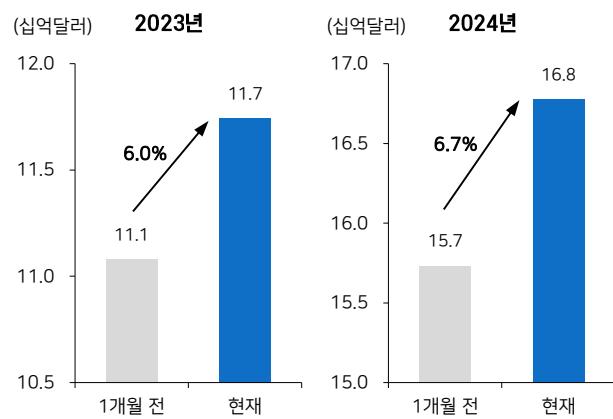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AWAY 구성 종목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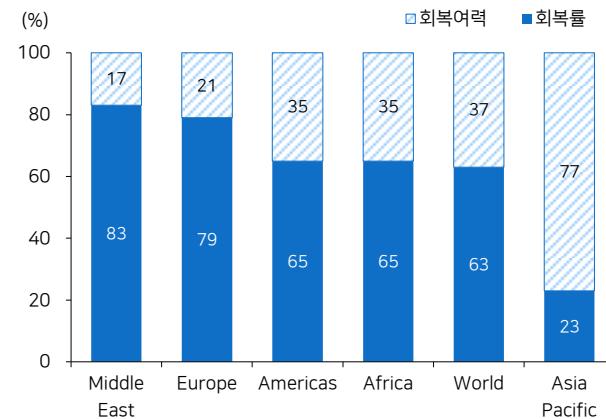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AWAY, 2023년, 2024년 이익전망치 추이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2019년 대비 아시아태평양 시장 회복 여력 80%



자료: UNWT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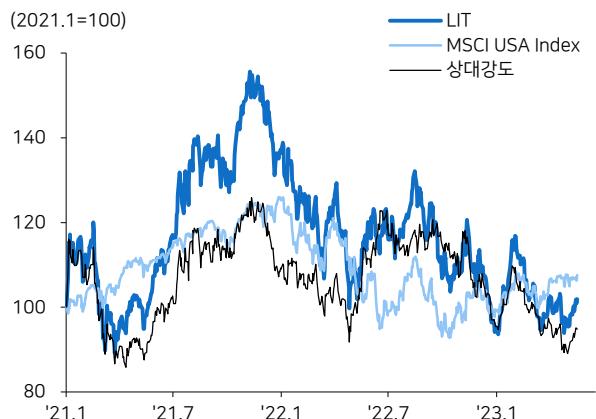
상향반전전망 #1: LIT(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LIT는 리튬 산업전반에 투자하는 ETF다. 구성종목은 크게 채굴/2차전지/전기차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1분기 실적 발표는 양호했다. 하지만 하지만 리튬 가격 하락에 Albemarle(-17.4%), Tianqi Lithium(-6.1%), Ganfeng Lithium(-13.3%) 등 채굴업체 각각 '23년 전망치가 최근 1개월 하락하면서 이익전망치는 하향조정 중이다.

2차전지, 전기차 대중화에 이익
흐름 상향 반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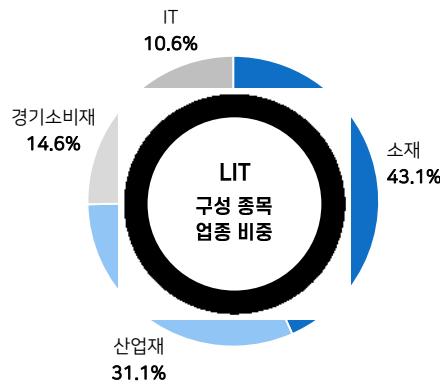
하반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배터리 생산가격 하락으로 2차전지 대중화가 실현되고 있고 전기차 침투율도 상승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봤을 때 Tianqi Lithium, Ganfeng Lithium 등 채굴업체 -20%씩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것에 비해 전기차 종목 BYD, Tesla는 각각 36%, 40%, 2차전지 종목 CATL, LGES는 20% 이상씩의 성장이 기대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24년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긍정적인 주가 반응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4 LIT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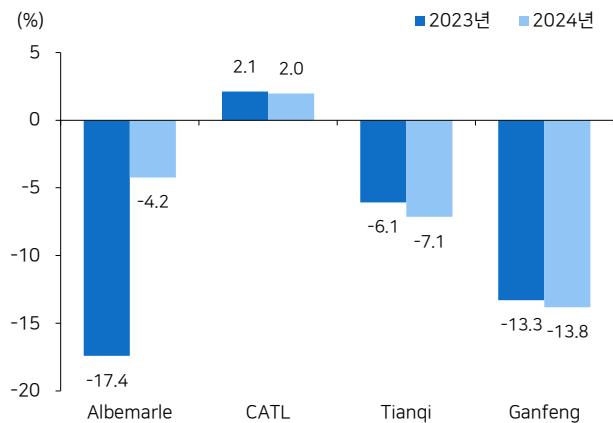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LIT 구성 종목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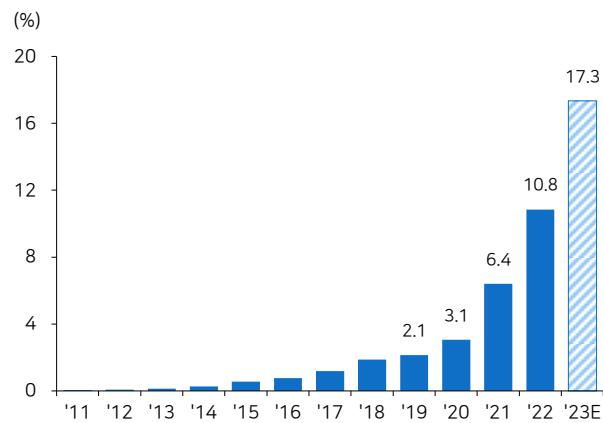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리튬 채굴업체, 2차전지 종목 이익전망치 조정_1개월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



자료: SNE Research, Marklines S&P Global Mobilit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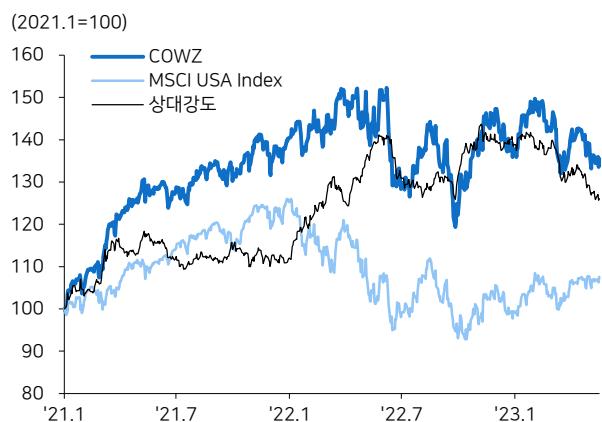
스타일(안정성) #1: COWZ(Pacer U.S. Cash Cows 100 ETF)

당사 글로벌 전략팀에서는 본 하반기 전망에서 미국 내 AI, 빅테크 등 성장 산업을 유망하다고 판단한다. 그에 대비한 일종의 바벨전략으로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잉여현금흐름 ETF COWZ를 추천한다. 미국 Russell 1000 Index 내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FCF) 퀄리티가 가장 양호한 100개를 스크리닝, 투자하는 ETF다.

잉여현금흐름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 부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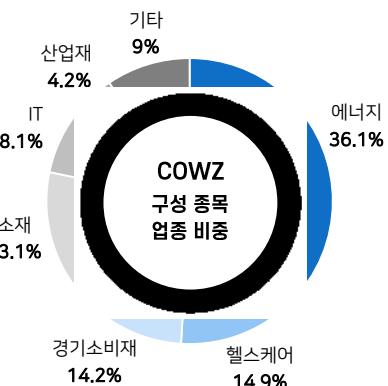
여러 가치테마 ETF 중 COWZ를 추천하는 이유는 2022년, 금리 인상 및 경기 불황 등 글로벌 매크로 우려에 S&P 500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FCF)가 10년만에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반적 FCF 악화 상황 속, FCF 양호 종목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18 COWZ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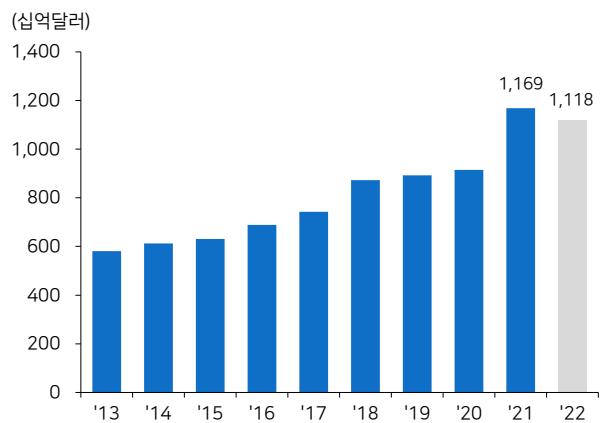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COWZ 구성 종목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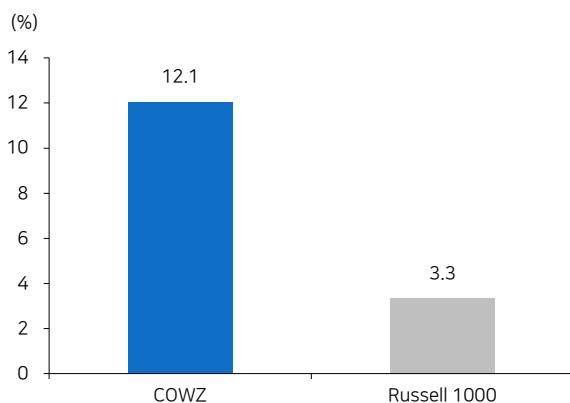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S&P 500 Free Cash Flow_‘22년 감소



주: S&P 500 종목 중 최근 10년 잉여현금흐름 데이터 존재종목 합계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COWZ vs Russell 1000_기업가치 대비 FCF 비율



자료: PacerET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윤동준 연구원

시작된 미국 제조업 설비 건설, 뒤이을 전기장비 수요에 주목 (Bloomberg)

미국 내 제조업 설비 건설 지출액이 달마다 고점을 갱신 중에 있다. 근 20년 동안의 건설 지출 통계 상 매우 이례적으로 가파른 상승이다. 2022년 8월 IRA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민간 비주거용 건설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IRA, CHIPS 법안을 통해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분명해져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섰다. CHIPS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 발표한 투자 계획만 2,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 IRA로 혜택을 받게 이차전지/EV, 재생에너지 업체들 또한 도합 2,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투자 계획이 예정된 상황이었으며 이 건들이 연이어 착공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설비 착공이 시작되며 지반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의 신규 주문이 증가하였고, 이는 중장기적인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를 반영했을 것이기에 건설 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용 전기장비 수요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설비는 다른 공종에 비해 내부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배선 규모 및 전력 소비량 자체도 커서 많은 산업용 전기장비가 필요하다. 외에 발전용 전기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분산 전력망 확대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해왔으며, 제조업 설비 건설과 맞물려 전기장비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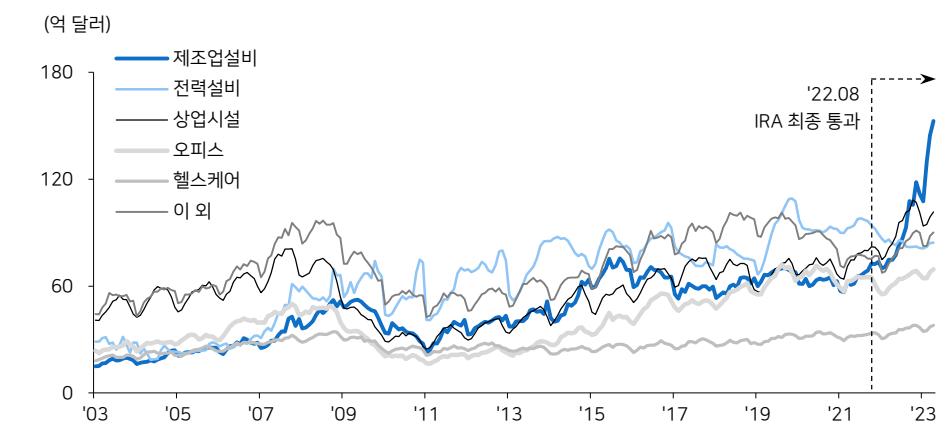
연이어 늘어나는 제조업 설비 건설 지출

2022년 8월 IRA 최종 통과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제조업 설비 건설 지출

미국 내 제조업 설비 건설 지출액이 달마다 고점을 갱신 중에 있다. 근 20년 동안의 건설 지출 통계 상 매우 이례적으로 가파른 상승이다. 2022년 8월 IRA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민간 비주거용 건설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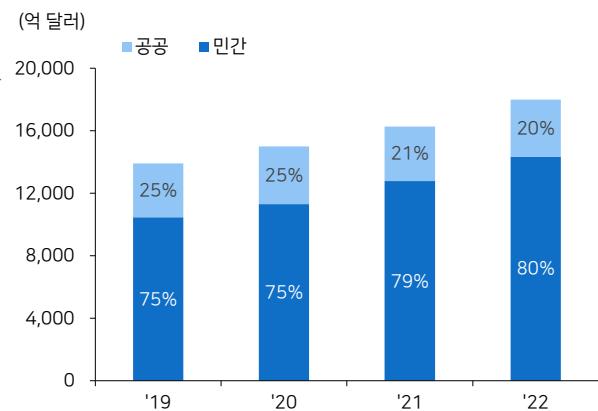
민간 건설 지출은 총 미국 건설 지출 중 70~80%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 시설 건설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민간 건설 지출 비중은 50~60%를 차지하며, 이 중 제조업설비 건설 지출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총 건설 지출 구조 자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에 대한 의지가 현실화 되고 있다 보여진다.

그림1 미국 월간 민간 비거주용 건설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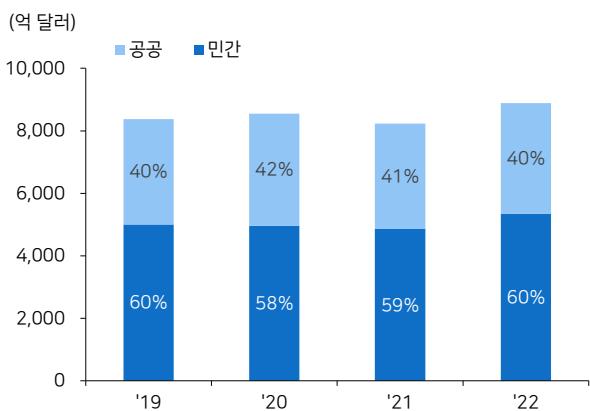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주체별 연간 건설 지출 추이 (주거+비주거)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주체별 연간 비주거시설 건설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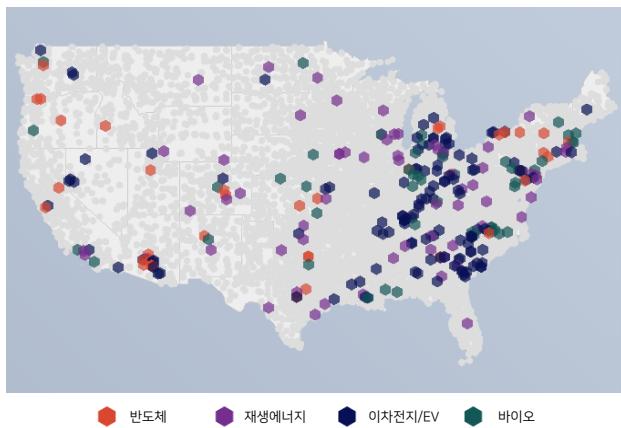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분명해진 혜택, 시작된 건설

미국 내 생산 제품 대한 혜택이
분명해짐에 따라 착공되고 있는
제조업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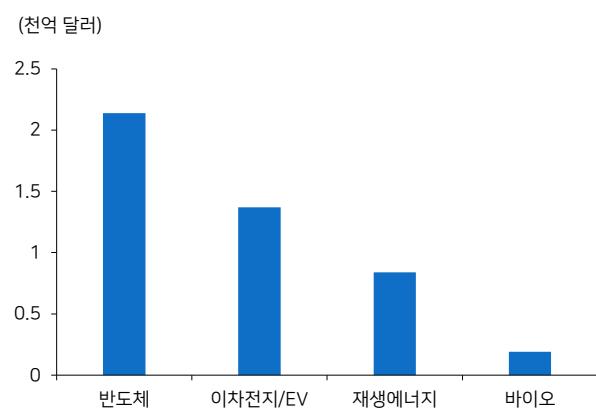
IRA, CHIPS 법안을 통해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분명해졌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다. CHIPS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 발표한 투자 계획만 2,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며, IRA로 혜택을 받게 이차전지/EV, 재생에너지 업체들 또한 도합 2,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예정 및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계획이 2025년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이어 착공에 돌입하는 프로젝트들로 인해 건설 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림4 미국 보조금 혜택 하 민간 제조업 생산 설비 건설 현황



자료: INVEST.GOV

그림5 바이든 행정부 하 업종별 제조업 민간 투자 계획 규모



자료: INVEST.GO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기계들에 대한 신규 주문은
증장기적 수요를 반영
→ 제조업 설비 건설 개화 확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거로는 건설을 위한 신규 건설기계 주문량 증가가 있다. 제조업 설비 건설 시 주택 건설에 비해 유휴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반공사가 더욱 필요하며, 건설기계는 지반 공사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제조업 생산 설비 건설의 증가에 따라 건설기계 신규 주문량이 늘어왔으며 주문 잔고 또한 10년 내 고점을 간신히 넘었다. 유효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보는 건설기계들에 대한 신규 주문은 증장기적인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를 반영했을 것이며, 이는 곧 지금의 건설 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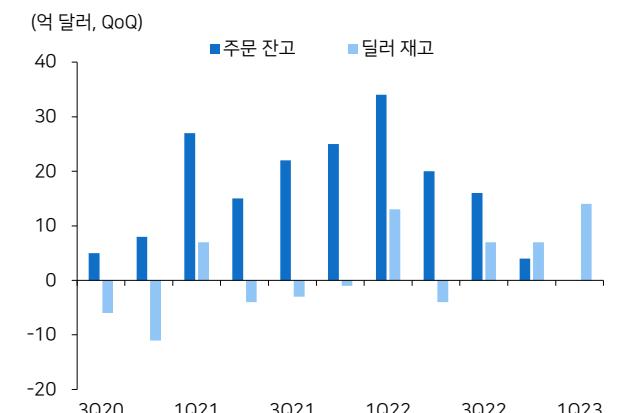
미국 내 건설기계 M/S 1위 업체인 캐터필러의 북미 매출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꾀하고 있던 두산밥캣의 북미 매출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미국 월간 건설기계 주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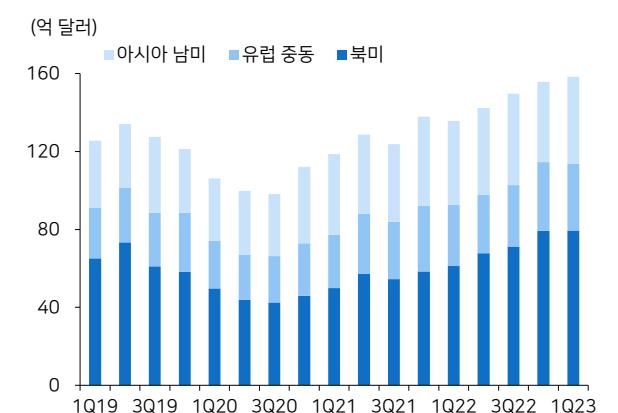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캐터필러 전분기 대비 주문 잔고 및 딜러 재고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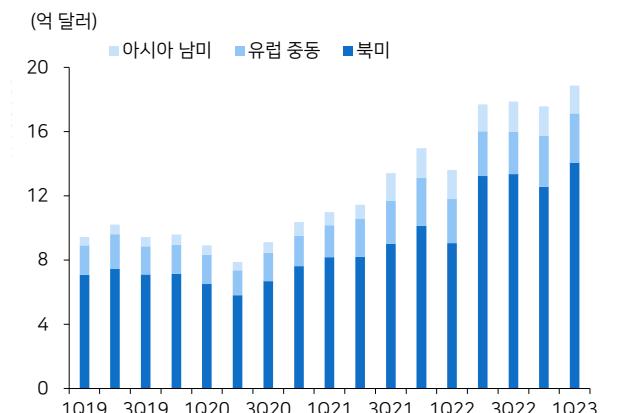
자료: Caterpilla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캐터필러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두산밥캣 지역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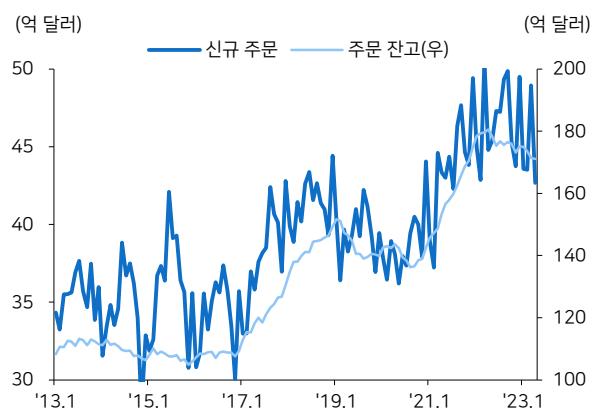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단계는 전기 공사

다른 공종에 비해 제조업 설비는 유독 많은 전기장비 필요

착공된 제조업 설비의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용 전기장비 수요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가장 처음에 행해지는 공정이 지반 공사라면,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는 공정은 내부 전력 설비 마감과 함께 전력 인프라와 연결하는 전기 공사이다. 게다가 제조업 설비는 다른 공종에 비해 전기 설비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배선 규모 및 전력 소비량 자체도 크다. 이에 제조업 설비는 다른 공종에 비해 산업용 전기장비(전력 설비 부품, 배변전)를 더욱 필요로 한다.

그림10 미국 월간 산업용 전기장비 주문



주: 산업용 전기장비는 전선, 배선장치 등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산업용 전기장비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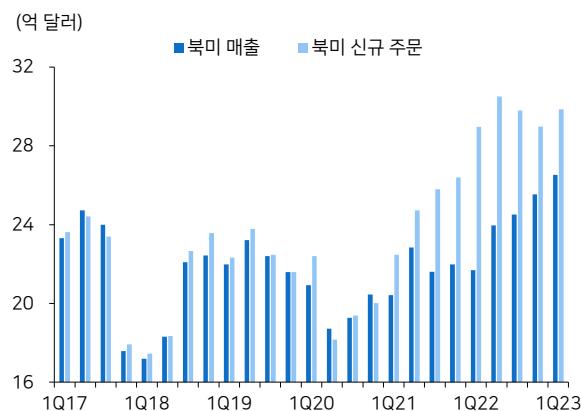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전기장비 솔루션 업체들의
북미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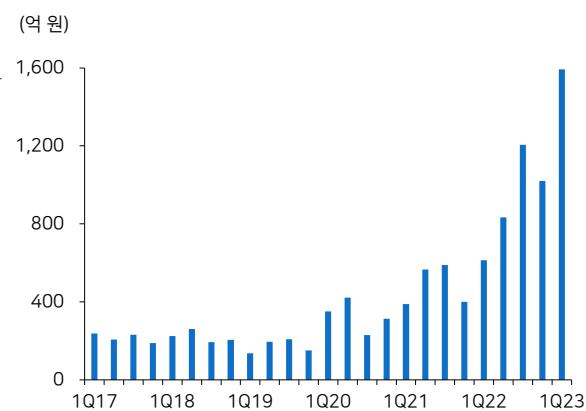
미국 내 제조업 설비 건설 증가에 따라 전기장비 솔루션 업체인 ABB의 북미 신규 주문과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 주문과 매출의 겹을 안정적이게 유지해왔던 동사는 2021년에 들어서부터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하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LS Electric은 북미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제조업 설비 건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12 ABB 북미 매출 및 신규 주문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LS Electric 북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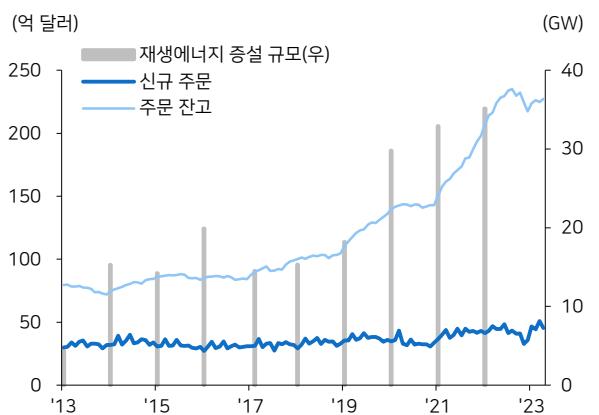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전기장비 솔루션

→발전용 + 산업용 전기장비
두 제품군 모두 수요 증가 전망

산업용 전기장비 수요에 더해 발전용 전기장비 수요 또한 견고하다. ABB, LS Electric과 같은 전기장비 솔루션 업체들은 1) 산업용 전기장비 사업과 함께 2) 발전용 전기장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발전용 전기장비에 대한 수요는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따른 분산 전력망 확대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해왔으며, 안정적인 신규 주문과 함께 주문 잔고가 증가해왔다. 앞서 언급했던 1) 전력 수요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설비 증설에 따른 산업용 전기장비의 수요와 함께 2) 계속해서 증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 공급단인 재생에너지 설비에서의 발전용 전기장비의 수요까지 계속해서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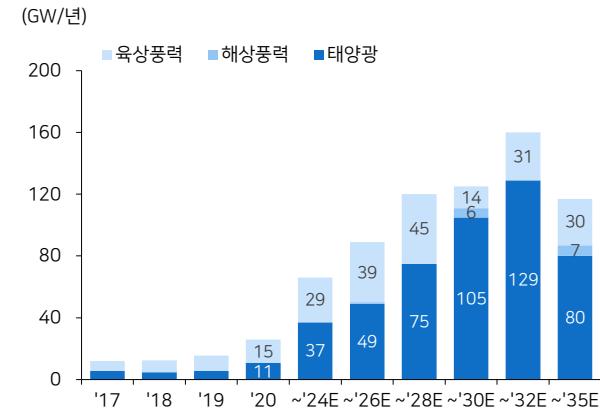
그림14 미국 월간 발전용 장비 주문/
미국 연간 재생에너지 증설량 추이



주: 발전용 전기장비는 모터, 변압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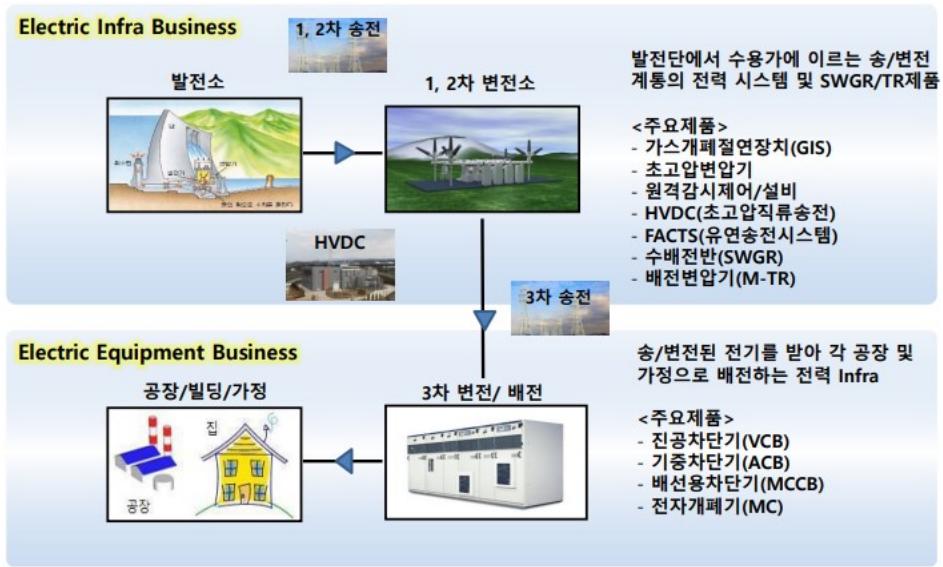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미국 IRA 하 재생에너지 연간 증설량 전망



자료: REPEAT Proje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발전용 전기장비 제품군



자료: LS Electric

원문: *Factory Boom Sweeps US With Construction at Record \$190 Billion (Bloomberg)*